

전남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국 최다’

고흥·보성·완도·진도 추가
시범지역 21개 시·군 확대
지역 맞춤형 사업 본격 추진
교육혁신·청년 연계 사업도

고흥·보성·완도·진도 등 전남도내 4개 군이 교육발전특구 3차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받았다. 이로써 전남은 22개 시·군 중 21곳이 교육발전특구인 전국 최다 지정 광역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7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에 기존 17개 시·군에 이어 고흥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이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중심의 교육혁신 시범사업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질 개선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천170억원(5년간)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182억원(4년간)을 추가로 확보, 지역 교육혁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재평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고흥·보성·완도·진도군

및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전남형 교육발전모델’을 발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다.

전남도는 교육과 취·창업, 지역 정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대학생 벤처창업 원정대, 벤처·로컬 창업 인턴스쿨 운영, 청년창업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청년과 지역의 미래를 잇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4개 지역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드론, 우주항공 특화산업,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보성군은 차(茶)산업, 힐링, 3보향 특화교육, 명문고 육성에 나선다.

완도군은 해양 치유, 케이(K)-해양바이오 맞춤형, 글로벌 해양 리더 양성을, 진도군은 보배섬 문화 예술 관광, 해양 생태교육, 작은학교 살리기, 정주 생활 인구 활성화 등의 맞춤형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전국 최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전남 교육혁신의 지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전남은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모델 지자체로서의 책무를 안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하는 교육혁신 프로젝트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2025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식'이 7일 남구청 상형실에서 열려 김병내 남구청장과 기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남구 제공>

광주 ‘비브리오팀’ 증가세…“수산물 섭취 주의해야”

6월 17.7%→7월 26.9% 검출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원인균인 병원성 비브리오팀이 급증하고 있어 수산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시중 유통 수산물과 지역 도매시장 수족관수에서 병원성 비브리오팀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연중 시기별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균인 병원성 비브리오팀(비브리오톡세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6-9월)에는 생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집중 강화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검사 결과, 비브리오팀 검출률은 1-4월 2.2%(1건 검출·45건 검사), 5월 6.3%(1건 검출·16건 검사), 6월 17.7%(3건 검출·17건 검사), 7월 26.9%(7건 검출·26건 검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비브리오팀의 급속한 증식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에 검출된 시료는 주로 수족관수와 손질되지 않은 패류에서 확인됐으며 생식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서는 병원성 비브리오팀이 검출되지 않았다.

병원성 비브리오팀에 감염될 경우 발열·오한

·설사·복통·구토 등 장염 증상은 물론 상처 감염 시 부종·발적·수포가 나타날 수 있다.

만성간질환자, 당뇨 환자 등 면역 저하자는 패혈증이나 쇼크 등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은 병원성 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하는 시기로, 수산물은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구입해 냉장·냉동 보관하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조리도구는 세척과 열탕처리를 통해 2차 오염을 방지하고 해수 접촉 시 상처가 있는 경우 피부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및 검사 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 고수온·폭염피해 ‘눈덩이’

조피불락·덥치 등 15만마리 집단폐사
가축 21만마리도…온열질환자 225명

고수온 현상으로 전남 양식어가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 폭염 속 가축 폐사와 온열질환자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완도·신안 17개 양식어가에서 조피불락, 덥치 15만7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피해액은 1억9천600만 원으로 추산됐다.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 등 4개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가축 폐사도 잇따랐다.

20개 시·군 433개 농가에서 21만7천245마리(닭 19만4천68마리·오리 1만2천402마리·돼지 1만773마리)의 가축이 고온으로 폐사했다. 피해액은 32억6천만원에 달했다.

도내 온열질환자는 지난 5월15일부터 현재까지 225명이 발생했다. 발생장소는 84.4%(190명)

가 실외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취약 사업장 대상 안전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펼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완도서 오늘 제6회 섬의 날 기념식

제6회 섬의 날 국가 기념식이 8일 오후 7시30분 완도군 해변공원 일원에서 전국 섬 주민과 내외빈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섬의 날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자연과 사람, 세대를 잇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막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신우철 완도군수, 섬을 보유한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장 등 정·관계 인사와 인천·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섬 주민들이 함께한다. /양시원 기자

남도장터, 상반기 매출 240억원…전년 동기比 28% 뛰었다

자사물 매출 95% ‘정충’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7일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187억원) 대비 28% 증가한 240억원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주요 매출 품목은 농산물 120억원, 수산물 59억원, 가공식품 44억원, 축산물 17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사물 매출이 전년 동기(42억원) 대비 약 95% 급증한 8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남도장터가 추진 중인 시·군물 연합이 본격화되면 플랫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운영 효율성과 마케팅 시너지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효과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도장터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센터 비스(CS) 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획전을 앞두고 품질 기준 대폭 강화와 고객 불만 발생 업체 제재 조치 실시 등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신뢰도 확보에 주

력하고 있다. 제품 불량, 발주 불이행, 허위 송장 입력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스 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퇴출 조치할 방침이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남도장터는 단순한 매출 확대를 넘어 고객에게 신뢰받는 전남도 대표 공공 소품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입점업체 교육과 품질관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지역유통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노인이 있는 곳이 곧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보행 사망자 중 62%가 고령 보행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도
어르신이 보인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배려해주세요

